

## 일본인 기술자들의 해외 취업 실태

- 일본기업에서 해고를 당했거나,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기술자들이 해외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특히 파나소닉 등 전기기기 대기업 출신 기술자들이 한국, 대만, 중국 등으로 유입되고 있음

### □ 해외기업으로 이직(移職)이 늘고 있는 일본인 기술자

- 기업의 글로벌화로 일본인 기술자들이 해외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인 기술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그룹임
- 일본기업에서 정리 해고를 당했거나,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일본인 기술자들이 해외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
- 삼성으로 이직한 일본인 기술자들의 출신 기업은 파나소닉, NEC, 도시바, 히타치 등 일렉트로닉스 관련 대기업이 많음

\*삼성그룹에 취업한 일본인 기술자 출신기업

기업	파나소닉	NEC	도시바	히타치	산요전기	르네사스	후지쯔	소니	미쯔비시	캐논
인원	53	47	39	39	35	31	27	26	25	20

\*출처: 닛케이비즈니스 (2013.7.6.)

- 통계에 따르면 한국·대만·중국의 3개국 가운데 삼성의 특허출원이 가장 많고, 관계되는 일본인 연구자도 많은 것으로 추정
- 대만 홍하이정밀공업의 일본인 점유율이 7.2%로 가장 높으나, 연구자 수는 삼성그룹이 225명으로 가장 많음

### < 각국 대표기업의 특허출원 건수와 연구자 수 >

	삼성	LG	홍하이정밀 공업 (대만)	공업기술연 구원 (대만)	화웨이 (중국)	ZTE (중국)
특허출원 건수	6,865건	1,989	1,808	855	633	404
연구자 총인원	11,100명	3,617	1,577	1,943	1,266	775
일본인 연구자	225명	17	113	14	1	0
일본인 점유율	2.0%	0.5	7.2	0.7	0.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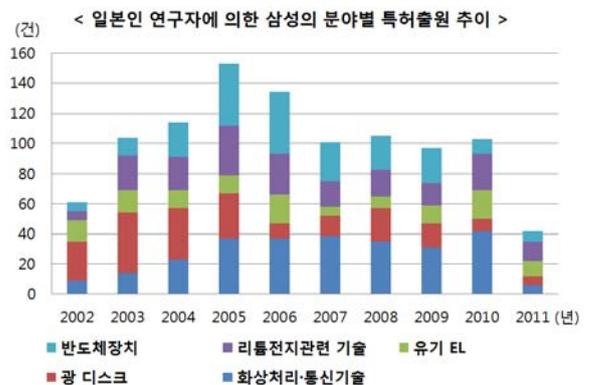
(주) 대만과 중국은 2002년 이후, 한국기업은 2008년 이후 통계  
자료 : 닛케이비즈니스(2013.7.8)

□ 삼성의 인재 확보 전략과 특허출원 동향

- 삼성그룹은 세계 각국에 R&D 연구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일본에 요코하마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술동향 등을 수집
  - 2009년 이전에는 요코하마연구소가 발표한 특허출원과 관련 있는 일본인 기술자는 약 20명이었는데 2010년에 52명으로 대폭 증가
  - 기술자가 이직하여 특허출원까지 약 1~2년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삼성은 2008년 리먼 사태로 인해 해고된 일본인 기술자들을 전략적으로 채용했을 것으로 추측
- 일본인 기술자들은 출신 기업들이 갖고 있는 강점 분야의 특허출원에 관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지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이 증가
  - 화상처리·통신기술은 산요전기와 후지쓰, 광디스크 관련 기술은 파나소닉과 도시바, 유기EL 관련 기술은 NEC, 전지 관련 기술은 파나소닉과 히타치, 반도체장치 관련 기술은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 출신자들이 많음

- 넷케이비즈니스 자료에 의하면 과거에는 DVD를 비롯한 광디스크 관련 기술의 비율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리튬이온전지와 유기EL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이 증가

\* 삼성은 리튬이온전지에서 2012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점유률 25.1%)를 차지하여, 2위인 파나소닉(20.7%)을 추월



- 기술진보 속도가 빨라 기술가치가 떨어지면 삼성에서도 이직을 요구 당하기 때문에 일본인 기술자의 유출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
  - 2002년 이후 삼성그룹 전체적으로 일본의 특허출원에 참여한 일본인 기술자는 485명에 달했지만, 이후 133명(27.4%)이 삼성을 떠나 다른 기업으로 이직한 것으로 추측
  - 133명의 평균 재직기간은 약 2년 6개월로 반도체장치 관련 특허출원 건수가 2006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의 기술자들이 다른 기업으로 재이직했을 가능성이 높음
  - 최근 주력인 전지관련분야에서 20여명의 퇴직기술자들이 이직한 것으로 파악

## □ 시사점

- 일본 제조업은 아베노믹스 효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자관련 대기업들의 경영실적은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을 육성하고 확보해야 하겠지만, 일본기업들은 경영실적 악화 때문에 기술자들의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
- 인재들의 국제교류는 세계의 기술 혁신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기술자를 유출당하는 국가나 기업입장에서는 국력 및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우려
  - 그러나 기술자 개인 입장으로 볼 때, 일본에서는 일생동안 연마해 온 자신의 기술이 사장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의욕을 국가나 기업이 제제할 수 없는 입장
  - 결국은 사업의 경쟁력 확보가 기술자 유출을 방지하는 최선책 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
- 일본인 기술자들이 제3국으로 이동한 것처럼 우리 기술자들도 중국 등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
  - 최근 들어 우리 기업들도 중국이나 대만 등으로 기술자의 이직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본기술자를 합법적이며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술자를 영입할 필요
-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기술 또한 기술자·연구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양국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
  - 동아시아 내에서 기술자의 유출입이 합법적으로 자유로워 질 수 있는 비즈니스 룰을 확립할 필요

## 〈참고자료〉

닛케이비즈니스(2013.7.8), 닛케이신문(2013.6.11)